

한국어 학습용 다국어 사전의 구축을 위한 번역 전략

정호정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통번역학부 교수

1. 들어가기

1996년 가을 미국 대학원 철학 수업, 플라톤의 《공화국(The Republic)》을 논하던 교수는 그가 정치 철학의 태두(泰斗)라고 말했다. 이상적인 사회 모델로, 시인의 감성을 가진 정치인이 이끄는 사회를 제시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대학원생이었던 나는 실제로 그 이상을 현실 정치에서 실천해 온 것이 한국의 왕들이었다고 말했다. 매일매일 경연(經筵)을 통해 선현들의 가르침을 읽고 고전 명시를 익히는 것이 좋은 왕이 되기 위한 공부의 일부였다는 이야기를 하자 교수는 한국 전통을 서양 철학과 접목한 영문 자료가 왜 없느냐고 물었다.

2010년 가을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 한국어 랭귀지 테이블(Language Table), 한국 이민 2, 3세가 아니라 피부색이 다른 다양한 학생들이 모여 한국어 회화를 공부하는데, 한국어 수준이 보통이 넘었다. 미국 아이비리그 수재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이자 교재는 인터넷에서 내려받는 한국 드라마, 과학 수사나 전문 직종의 직업 세계가 소재인 ‘미드’와는 달리 사랑과 인간관계를 다루는 ‘한드’가 재미있어 밤을 새우기도 하는데, 이것만으로는 한국어 배우기가 너무 어렵다고 고개를 저었다.

2016년 끝자락, 우리 것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외국어 자료가 태부족인 현실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지만 다행히도 한국어 학습을 희망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학습 자료는 이제 우리 손으로 만들어 내기 시작하고 있다. 그중에 대표적인 노력이 《국립국어원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이다.

2. 왜 《국립국어원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에 주목하는가?

2016년 10월 한글날을 겨냥하여 시범 개통된 《국립국어원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다국어사전”)은 ‘개방형 한국어 지식 통합 사전 다국어 사전 구축 사업’과 ‘개방형 한국어 지식 통합 사전 다국어 사전 감수 사업’의 두 갈래로 이루어진 번역 작업의 결실이다. 한국국제회의통역학회¹⁾가 담당한 번역 작업은 우선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일본어, 아랍어를 대상으로 2013년~2015년의 3년 동안 이루어졌다. 몽골어, 베트남어, 타이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러시아어에 대해서는 2013년 이전에 이미 진행된 번역 결과물을 2014년~2015년의 2년 동안 동 학회가 재번역에 가까운 감수 평가 및 보완을 거쳐 번역 수준을 높였다. 마지막으로 2016년 한 해 동안 10개 언어로 구축된 번역 결과물 전체에 대한 ‘통합 정비’를 거쳐 사전으로서의 체계와 통일성·일관성을 높여 탄생된 다국어 사전은 몇 가지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우선 이 사전의 가장 직접적인 동인(動因)은 한마디로 ‘한국적인 것’에 대한 세계적 관심, 그리고 이의 이해와 확산의 도구로서의 ‘한국어’에 대한 학습 수요 증가를 들 수 있다. 그동안 ‘케이팝(K-POP)’ 및 ‘드라마 한류’ 등 우리 문화의 확산과 우리 사회의 경제력 신장에 따른 국제적 지위

1) 현재 ‘한국통역번역학회(KSCI)’의 전신임.

상승 등이 합해져 ‘우리 것’에 대한 해외의 관심이 높아졌다. 이는 다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학습’에 대한 요구로 이어졌고, 이에 부응하기 위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뿐만 아니라 ‘한국어 교육 도구 개발’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특히 해외에서 자생적으로 한국어를 학습하려는 이들에게 누구나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한국어 학습 도구를 제공한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갖고 진행된 다국어 사전 구축은 ‘한국적인 것’에 대한 세계인들의 인식 확산이 없었더라면 시도되기 어려운 사업이었다.

이 점은 번역 실무 면에서의 두 번째 특징, 한국어 사전을 출발 텍스트로 하여 외국어로 번역하는 대표적인 아웃바운드(outbound) 번역 작업²⁾이라는 점과도 연결된다. 정부 공공 예산으로 이루어지는 공공 번역의 경우 세계적으로 대체로 인바운드(inbound) 번역의 중요성과 규모가 훨씬 큰데 그 이유는 인바운드 번역이 주로 목표 언어 사회 내에서의 효과적 소통을 통한 내적 결속 강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정호정·임현경, 2013).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것’에 대한 관심 급증은 다시 ‘우리 것’을 소개하는 아웃바운드 번역 수요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이번 다국어 사전 구축을 위한 번역은 대표적인 공공 분야 아웃바운드 번역 작업일 뿐만 아니라,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에게 한국어 학습 틀을 제공함으로써 다시 이들 외국인 학습자들에 의한 아웃바운드 번역의 가능성을 열었다. 2016년도 우리 사회 전반과 번역계에 돌풍을 몰고 온 《채식주의자》의 번역사 테보라 스미스처럼 한국어를 학습한 외국인들이 ‘한국적인 것’을 자신의 모국어로 번역하는 경우들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2) 공공 번역 분야에서 아웃바운드 번역이 강조되는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와 중국이 대표적이다. 중국은 ‘G2’라는 위상과 ‘중국 공산당의 이데올로기 확산’이라는 국가적 수요 때문에 아웃바운드 번역을 전담하는 기구를 중국 공산당 서기국 내에 두고 아웃바운드 번역을 추진한다.

세 번째로는 번역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는 전문 번역사들에 의해 ‘문화 소통’ 기능을 강화하는 번역에 주력했다는 것도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그동안의 사전이 언어학자나 사전 전문가들이 주축이 되어 진행됐다면 다국어 사전은 작업 성격상 전문 번역사들이 번역 기획에서부터 번역 과정 및 모델 구축, 번역 전략 및 방식 수립 등을 이끌어 나갈 수밖에 없었다. 특히 단순한 언어 치환식이 아니라 번역 결과물인 사전을 최종적으로 이용할 대상 독자를 번역 기획 단계에서부터 염두에 두고 이들의 눈높이를 고려한 번역 전략을 세웠다.

3. 사용자의 눈높이를 겨냥한 ‘충실한’ 번역

대표적인 것이 문화소(cultureme)의 번역이다. 도착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언어 문화권에는 존재하지 않고 한국어 언어 문화권에만 존재하는 사회 현상과 문화 콘텐츠를 다루는 표제어들을 일정한 선별 과정을 거쳐 걸러 낸 다음 번역 방식을 통일했다.

문화 소통적 사전 번역의 예

한국어 속담	영어 번역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A healthy and large tree can be recognized even as a seed leaf. Sandalwood is fragrant even in seed leaf.
공자 앞에서 문자 쓴다.	Act learned by citing Confucius teaching in front of Confucius. Teaching fish how to swim.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Even a sheet of blank paper is easier to carry when lifted up by two people. Cooperation makes an easy task much easier.

즉 해당 표현들을 해외 한국어 학습자들이 입에 붙여 사용할 수 있도록 음가 표기를 제공하는 ‘음역’과 함께 뜻을 번역하는 ‘의미역’을 같이 제시하였다. 또 이들 문화소가 사용되는 속담이나 관용 표현의 경우 위 예³⁾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해당 언어에서 통용되는 ‘등가 표현’을 제시하여 즉각적인 의미 이해가 가능하도록 하는 동시에 ‘직역’을 통해 해당 표현의 한국어로서의 의미도 함께 익힐 수 있도록 하였다. 문화소 번역 전략을 별도로 운영한 것 이외에도 번역 대상 독자의 사회 경제 교육 수준을 미리 정의하여 목표 언어역을 설정하였다. 각 문화권에서 고등학교 졸업 정도의 교육 수준을 갖고 있고, 한국어나 한국어에 접한 경험이 많지 않으면서 한국적인 것에 대한 지적 호기심이 강한 독자를 겨냥하여 사전적 설명의 이해 용이성을 높이는 번역 전략을 채택하였다. 또 다국어 사전이 ‘한-한-영’, ‘한-한-타이어’와 같이 표제어와 뜻풀이가 일단 한국어로 제시된 것을 목표 도착어로 번역하는 이중 언어화 사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출발 텍스트에 제시된 정보를 최대한 가감 삭제 없이 충실하게 번역하는 것을 우선적인 목표로 삼았다.

이런 목표는 다시 번역 과정 전반에 대한 기획에도 영향을 주었다. 통상적인 ‘번역사 번역 → 원어민 언어 감수 → 번역사 검토 및 확정’의 3단계 감수 방식 대신에 ‘내용 감수’ 단계를 언어 감수 이전에 추가함으로써 출발 텍스트의 정보성이 충실하게 전달되도록 하였다.

3) ‘번역 과정에 있어서의 번역 브리프와 번역 결정: 다국어 사전 구축 번역에 대한 사례 연구’ (정호정, 2016)에서 인용.

4. 번역 과정의 설계와 앞으로의 과제

이처럼 전문 번역사가 번역의 목표와 대상 독자를 미리 정의하고 이를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번역 과정을 운영한 것은 전반적인 번역 수준을 높이고 발주처인 국립국어원과 사전을 사용할 잠재 독자가 만족할 수 있는 방식의 번역을 제공하는 데 주효했다고 생각된다. 실제 작업에 착수하기 이전에 전문 번역사가 발주처와 긴밀한 의사소통 과정을 거쳐 전체적인 번역 과정의 흐름과 작업 모델을 미리 결정하고 구체적이고 상세한 ‘번역 지침’을 작성·공유함으로써 번역 수준을 선제적(先制的)으로 관리하고 번역 스타일을 효과적으로 통일할 수 있었다. 앞으로 독자들의 이해용이성을 높이기 위해 출발어인 한국어와 도착어의 문법 구조적 차이 등을 간단하게 설명한 ‘문법 길라잡이’ 같은 것을 보완하여 제공한다면 독자들의 편의와 만족도가 더 커질 것이다.

이번 다국어 사전 구축을 위한 번역 사업은 향후 공공 번역에 있어서 발주처인 정부 기관과 전문 번역사들이 어떤 방식으로 협업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한 모델을 제시하였다고 생각된다. 특히 요구되는 번역의 성격과 대상 독자, 목표 등을 작업 착수 이전에 명확하게 정의하고 이를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작업 모델에 대한 이해를 번역사와 발주처가 공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이다. ‘우리 것’에 대한 아웃바운드 번역 수요가 계속 커지는 상황에서 공공 번역을 담당하는 국가 기관과 전문 번역사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번역 결과물을 만들어 내기 위해 함께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고, 정부 차원에서는 번역이 필요한 대상 텍스트를 목록화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번역 사업을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